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에 서양화 김상은씨 영예

‘제42회 무등미술대전’ 입상자 선정 발표

10개 부문 출품작 1892점 접수 대상 7점 등 1114점 입상
입상작품 시상식과 함께 17~22일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한국화단과 지역 화단을 이끌어갈 신예 작가를 발굴, 육성하기 위한 ‘무등미술대전’ 입상자가 가려졌다.

사단법인 광주전남발전협의회(회장 박호배)는 전국 각 지역 고령 연령층에서 1892점이 출품된 ‘제42회 무등미술대전’ 심사를 지난 2일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서 진행한 결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대상과 우수상, 특선, 입선 등 10개 부문 입상자가 가려졌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처럼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으로 열린 이번 미술대전은 제41회 대전에 총 1944점이 출품된데 비해 올해는 1892점이 접수돼 52점이 줄어들었다.

이는 제40회 대전에 비해 지난해 대전 때 129점이 늘어난 것과는 대조적으로 올해 대전에서는 소폭 감소했다.

4월에 대전이 실시된다는 지난해 하반기에 광주다자언비엔날레가 열리게 되어 대전 일정을 앞당겨 열렸던 것처럼, 올해 역시 하반기에 ‘2026 제16회 광주비엔날레’(9월 5일~11월 15일)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앞당겨 실시했다.

여기다 지난 대전보다 접수작품이 감소

한 이유로 학기초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멋글씨와 사진 등이 줄어든 반면 서예와 공예 등은 다소 늘어났다. 멋글씨는 111편이, 사진은 51편이 줄어들었으며, 서예는 지난해에 비해 75편이, 공예는 43편이, 조각은 12편이 각각 증가해 대조를 이뤘다.

최대 공모분야는 사진이 462점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고, 그 뒤를 이어 한국화가 236점, 공예가 224점, 문인화가 193점, 서양화가 167점 등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미술대전에는 한국화를 비롯해 문인화, 서양화, 수채화, 판화, 조각, 공예(금속·도자·목질·섬유한지), 서예(한글·한문·현대서예·멋글씨), 사진 등 10개 분야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1점을 비롯해 대상 7점, 우수상 28점, 특선 392점, 입선 686점 등 총 1114점이 입상했다.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상자는 서양화 장르의 김상은씨(24·대구)의 ‘아삭아삭 사과’가 영예를 안았다. 이어 대상 작으로는 한국화에 김시현씨(25·광주)의



서양화 대상 김상은 작 ‘아삭아삭 사과’

‘이면의 조용’이, 문인화에 권희선씨(61·경기 고양)의 ‘세월은 꽃향기에 묻혀’, 수채화에 최복씨(54·전북 전주)의 ‘님 그림자’가, 공예(섬유)에 박소정씨(54·전남 해남)의 ‘흐름’이, 서예(한문)에 김서정씨(41·광주)의 ‘김효일 선생시’가 각각 선정됐다.

이밖에 멋글씨에 손영미씨(58·광주)의 ‘꽃피울 내 인생이’, 사진에 신호선씨(71·인천)의 ‘천국의 계단’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1명을 포함해 대상 수상자는 지난해 8명에서 1명이 줄었으며, 지난해 광주 대상 수상자가 1명에 그쳤지만 올해는 3명으로 늘어났다. 판화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대상 수상자를 배출하지 못했다.



한국화 대상 김시현 작 ‘이면의 조용’

무등미술대전은 다른 미술대전과 달리 최우수상을 뽑지 않고 있다.

우수상에는 한국화에 ‘세벽장터’를 출품한 선재순씨(75)와 ‘진상’을 출품한 조혜

린씨(23), 서양화에 ‘저요’를 출품한 김원람씨(61)와 ‘환희’를 출품한 김은영씨(49) 및 ‘열병의 경계’를 출품한 조원영씨(37), 판화에 ‘행복’을 출품한 박혜영씨

(52) 등이 뽑혔다.

문인화에 ‘노숙’을 출품한 이가령씨(57)와 수채화에 ‘바다 이야기’를 출품한 신명씨(51) 등 우수상 수상자 28명 중 7명이 광주 출신으로 밝혀졌다.

심사위원들은 전반적으로 작품의 완성도와 창의성 측면에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으며, 젊은 작가들의 참신한 시도와 동시대적 감각이 여러 부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는

심사위원장인 김재일씨(한국화가·광주)는 심사총평을 통해 “그동안 지역 미술의 저변을 확대하고 역량 있는 작가를 발굴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번 전시 역시 전통과 현대, 실험과 완성도가 조화를 이루며 지역 미술의 발전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앞으로도 무등미술대전이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예술 정신을 바탕으로 문화 교류와 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미술 행사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 출품 작가 여러분의 지속적인 창작 활동과 발전을 기원한다”고 전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1명과 분야별 대상 7명에게는 각각 상금 500만원이 수여되며, 우수상 28명에게는 상금 각 100만원이 주어진다.

입상작에 대한 시상식은 개막식에 앞서 오는 17일 오후 2시 광주비엔날레 전시실에서 열린다. 전시는 17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희로애락 담긴 30년, 무대로 진솔하게 전달할 것”

음악인생 집약 독주회 갖는 김선희 소프라노
7일 광주 예당 소극장·17일 서울 예술의전당서

“이탈리아로 유학을 떠났다가 1996년 귀국했으니 데뷔한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독창회가 30년간 쌓아온 음악 관공과 나누는 자리인 만큼, 작품 하나하나에 담긴 감정과 이야기를 진솔하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데뷔 30주년을 맞은 김선희 소프라노는 독창회를 앞두고 3일 이처럼 소감을 밝혔다.

이번 독창회는 41번째 펼쳐지는 것으로 그가 그간 축적해온 음악 세계를 선보이는 자리다. 지역에서는 드물게 광주와 서울에서 갖는다.

그는 “서울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의 공연은 100대 1이라는 경쟁률을 뚫고 결정이 돼 내 터전인 광주에서도 무대를 선보이기로 했다”며 “그동안 무대에 서면서 다양한 감정을 음악으로 풀어왔기에 이번 독창회에서 희로애락을 압축적으로 선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선희 소프라노는 조선대학교 음악교육과를 졸업하고 성악의 본고장인 이탈리아로 건너가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에서 수학하며 정통 벨칸토 창법을 체득했다.

유학 시절부터 탄탄한 기본기와 음악적 해석력을 인정받았으며, 귀국한 뒤에는 오페라와 오라토리오, 독창회 등 다양한 무대에서 활발히 활동해왔다.

뿐만 아니라 전남대와 호남신학대.

광주대, 순천대 등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현재 한세대 외래교수를 역임하고 있다. 프리마돈나 단원, GIC 국제교류센터 클라리넷 회원, 한국중국가곡연구회 이사, 광주성악가협회 회장, 한국성악가협회 이사로도 활발히 활동 중이다.

이번 독창회에서는 이같은 경험을 무대에 녹인다. 바로크에서 낭만, 오페라와 가곡을 아우르는 폭넓은 레퍼토리를 통해 김선희가 걸어온 음악적 여정을 입체적으로 조망하는 자리다. 헨델과 슈트라우스, 비제, 푸치니 등 폭넓은 작품으로 무대를 채운다. 인간의 여러 감정을 한 무대에 풀어내는 프로그램과 곡에 대한 집중도 높은 해석이 돋보이는 무대가 될 전망이다.

먼저 헨델의 오페라 ‘리날도’ 중 ‘아름다운 페락온’과 ‘세르세’의 ‘그 작고 자유로운 시냇물은 기쁘게 흐르네’로 바로크 음악 특유의 우아한 정서를 들려준다.

다음으로 세키의 ‘님을 멀리 떠나’로 고전 성악곡의 서정성을 더하고, 슈트라우스의 ‘수레국화’, ‘양귀비 꽃’, ‘체칠리아’ 등을 통해 섬세한 독일 가곡의 정취를 펼쳐낸다.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 중 ‘아무것도 나를 두렵게 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으로 극적인 감정을 끌어올린 뒤, 인터미션 이후에는 우리 가곡으로 무대를 장식한다.

“강변 아리랑”을 비롯해 ‘가시나무 꽃’, ‘강 건너 봄이 오듯’ 등으로 한국적 정서의 깊이를 전한다. 아울러 슈베트의 오페레타 ‘비너스 인 실크’ 중 ‘당신의 바이올린으로 연주해 주세요’, 카탈라니 ‘라 율리’의 ‘그렇다면 멀리 떠나겠어요’, 푸치니 ‘토스카’의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로 프로그램의 대미를 장식한다.

피아니스트 김민준과 바이올리니스트 김도연, 첼리스트 이아미가 함께해 풍성한 앙상블을 완성할 예정이다.

김선희 소프라노는 “기쁨과 슬픔, 환희 등 극적인 감정을 노래로 들려주기 위해 레퍼토리를 직접 짰다”며 “관객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한국가곡을 부르는 것도 이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객들이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 싶어 노래 뿐만 아니라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솔로를 중간 중간 넣었다”면서 “성악 뿐만 아니라 연주까지 폭넓게 즐길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프라노 김선희 독창회는 오는 7일 오후 7시30분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펼쳐진다. 이어 서울 공연은 17일 오후 7시 30분에는 서울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열린다.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국제레지던시 스튜디오’ 입주작가 선발 완료

광주시립미술관, 회화 송유미, 직조·회화 윤연우 등 2명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11개월 간...미술지평 확장 기대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윤익)은 지역 미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국제네트워크를 확장하기 위해 운영하는 ‘2026 국제레지던시 스튜디오’의 입주작가 선발을 완료했다.



송유미 작가

윤연우 작가

이번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된 작가는 광주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송유미(회화)와 윤연우(직조·회화) 등 총 2명이다. 이들은 지난 3월 초까지 진행된 공개 모집과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됐다.

선발된 작가는 4월부터 2027년 2월까지 11개월 동안 중의공원 내에 위치한 광주시립미술관 국제레지던시 스튜디오에 입주하게 된다. 미술관은 입주 기간 동안 작가들에게 개별 창작실, 거주공간, 창작비를 지원하며,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주요 지원프로그램으로는 △작가들의 창작과정을 대중과 공유하는 ‘오픈스튜디오’ △전문가의 피드백 및 네트워킹을 통해 작품 세계 확장을 모색하는 ‘비평, 교류 워크숍과 세미나’ △국내 문화예술현장을 직접 경험하는 문화예술탐방 등이 포함된다.

선정작가 송유미씨는 25년간 지속해온 화업을 바탕으로, 서예의 필법과 전통 무예의 흐름이 결합된 비구상 회화를 선보인다. 이번 레지던시에서는 500호 이상의 대형 연작을 제작하며, 창작과정을 콘텐츠로 기록하는 등 대중과 작업의 정신적 가치를 공유하는 데 노력 중이다.

또 윤연우 작가는 직조의 원리를 ‘고정된 것 위에 하염없이 쌓이는 시간’으로 정의하고, 수행적인 노동을 통해 공예성의 조형 언어를 시각 미술의 맥락에서 구현한다. 작가는 원시적 재료인 실을 매개로 도시 풍경의 변화와 일상의 서사를 유기적으로 엮어내며, 경계 사이에 존재하는 미세한 관계와 연결의 미학을 탐구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대동문화재단, 청년 세계유산지킴이 지원

내일 서울서 발대식...전라제주권 주관 6팀 멘토링

“2026 청년 세계유산지킴이 발대식”이 7일 오후 2시 서울 세종로 소재 고궁박물관 별관에서 열리는 가운데 (사)대동문화재단이 전라제주권 주관단체를 맡아 총 6개 팀의 지원과 멘토링을 수행한다.

청년 세계유산지킴이는 지난 2011년 시작해 올해로 16년차를 맞는다. 국가유산청(정장 최은정)과 (사)한국국가유산

승원’, ‘태안 유류 피해 극복 기록물’ 등 잠정목록을 포함한 다양한 세계유산·인류무형유산·세계기록유산을 대상으로 보존·체험·교육·홍보·점검(모니터링)·국제교류 등의 자율적인 보호 활동을 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는 전국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참여하여 각자의 시각으로 세계유산의 가치를 재조명할 계획이다.

세계유산 잠정목록인 ‘낙안읍성’을 주제로 한 Nak-One Stay(전남대·건국대)팀과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을 탐구하는 가람지기(조선대)팀,

KBS 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기록물을 주제로 하는 記勢(기세), 기억을 세우다(전남대·한남대)팀과 이름(전남대)팀 등이 본격 활동을 펼친다.

청년 지킴이들은 5월 중 권역별 주관단체에서 운영하는 국가유산 교육을 받고, 참가 팀별 세부 활동 계획을 수립, 우리 세계유산의 가치를 새롭게 알리는 대면·비대면의 세계유산 홍보 활동을 진행한다. 우수활동 팀은 연말에 개최되는 ‘청년 세계유산지킴이 우수활동 경진대회’에서 발표와 함께 시상한다.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전남 생활문화 동아리·주민공동체 사업 공모

문화재단, 13일까지...20여개 단체 9000만원 지원

전남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은영)은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 장려를 위해 ‘2026 생활문화 진흥사업’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공모는 도내에서 활동 중인 생활문화 동호회·동아리 및 마을 단위 주민공동체 등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내용은 생활문화 프로그램 운영, 공간 활용 활동, 구성원 역량강화 및 교류사업 등으로, 지역 주민이 일상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문화예술 활동을 폭넓게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총 9000만원으로 20여개 단체를 선정해 단체별 30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 공고문은 재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공고기간은 오는 13일까지. 신청 접수는 6일부터 13일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최종 선정 결과는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